



## 최근 미국의 對오만·태국 FTA 협상 분석 및 시사점

이준규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장 (junkyul@kiep.go.kr, Tel: 3460-1128)

### 주요 내용

- ▣ 미국은 2005년 7월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비준, 10월 중동국가 중 다섯 번째로 오만과의 FTA 체결에 이어, 9월 말 태국과 FTA 5차 협상을 끝내고 11월 6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등 활발하게 아시아 국가 등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음.
- ▣ 2005년 10월 3일 체결된 미·오만 FTA는 제조업 및 농산물 시장개방, 지식재산권, 시정 각, 운송, 통신, 유통, 금융, 보건 등 서비스 부문 전반 및 노동, 환경 조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3월 협상을 개시한 이래 7개월 만에 신속하게 타결되었음.
- ▣ 미국의 대태국 FTA 추진은 미국의 대ASEAN 무역전략인 'ASEAN 이니셔티브사업(Enterprise for ASEAN Initiative)'을 기초로 시작되었고, 태국은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인 미국시장 확보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 ASEAN에서의 FTA 허브국가 및 외교 주도국 달성 등의 목적으로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음.
- ▣ 미·태국 FTA 협상의 주요 이슈는 (i) 비농업수입품에 대한 태국의 높은 평균관세, (ii) 태국의 수입허가제, 관세행정의 투명성 제고, (iii) 설탕, 쌀 등의 농산물 시장개방, 태국의 관세 및 비관세 농산물시장 제도, (vi) 통신, 법률, 금융, 건설, 회계, 택배 등 서비스 시장 전분야에 걸친 개방, (vii)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 및 노동 등임.
- ▣ 미·태국 양국의 FTA 협상 과정, 주요 이슈 및 향후 향방은 한·미 FTA 협상시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이슈에 대한 여러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어 주목해야 할 가치가 있음. 또한 2007년 중반 미국의 무역진흥권한(TPA) 소멸시기,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우리의 정치일정, DDA 진행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보다 적극적인 대미 FTA 전략 및 추진이 필요함.

# 1. 머리말

-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될 때까지 단 두 개의 FTA 협정(이스라엘(1985) 및 캐나다(1989))만을 체결하였던 미국은 2002년 이후 더 적극적으로<sup>1)</sup> FTA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 들어 2005년 하반기에는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을<sup>2)</sup> 미의회에서 비준(7월 28일)하였고, 중동국가 중 다섯 번째로 오만과 FTA를 체결(10월)하였으며, 현재 태국과 FTA 5차 협상(9월)을 끝내고 11월 6차 협상을 앞두고 있음.

표 1. 1985~2005년 미국의 FTA 추진동향

	1985년	1989년	1994년	2002년	2004년	2005년
상대국	이스라엘	캐나다	NAFTA (멕시코, 캐나다)	요르단	모로코(체결) 호주(체결) 바레인(체결) 칠레(발효), 싱가포르(발효)	호주 발효, CAFTA 비준, 오만 체결, 태국과 FTA 협상 진행 중

- 미국은 현재 미주 34개국을 포함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비롯하여, ANDEAN(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SACU(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스와질란드), 태국, 파나마 등 44개국과 F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중동국가인 아랍에미레이트(UAE)와의 협상은 2004년 11월 발표되어 2005년<sup>3)</sup>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2007년 중반 미국 대통령의 무역진흥권한(TPA) 소멸이 예정되어 있어, 미국정부는 2005년 들어 더욱 적극적으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해왔고, 이 중에서 미국이 2005년 하반기에 체결한 미·오만 FTA의 주요 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미·태국 FTA 협상의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은 우리나라의 향후 FTA 협상 및 정책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임.

## 2. 미국 · 오만 FTA 체결

### 가. 협상 진행 및 주요 배경

- 美 무역대표부(USTR)는 10월 3일 Rob Portman USTR 대표와 Maqbool Bin Ali Sultan 오만

1) 미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무역증진권한(TPA)이 적극적인 FTA 체결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함.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5), 「중미자유무역협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5-28호 참고.  
 3) 미국은 U.A.E.와 2005년 이미 두 차례의 협상을 가졌고, 11월 세 번째 협상을 진행할 예정임.

상공부 장관이 화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 양국의 FTA 체결은 2004년 11월 15일 미국정부가 FTA 협상 개시 의향을 의회에 통보하고 2005년 3월 12일 협상을 개시한 이래 7개월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임.
- 미국은 2003년 5월 부시 대통령이 중동지역자유무역지대(MEFTA) 창설을 통해 중동국가의 개방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을 제안한 이후 중동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적극 나서고 있고, 미·오만 FTA 체결도 MEFTA를 목표로 추진되고 체결된 것임.

■ 미·중동 자유무역지대 이니셔티브(U.S.-Middle East Free Trade Area Initiative)<sup>4)</sup>

- 2003년 5월 부시 대통령은 2013년까지 중동자유무역지대(MEFTA) 창설을 목표로, 중동지역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통한 경제적 번영, 중동지역과 미국과의 관계 증진, 중동지역의 개혁 및 정치·경제 자유화 촉진, 중동지역에서의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미·중동 자유무역지대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음.
- 중동지역국가와의 FTA 체결의 특징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외교안보적 이익을 우선하며, 포괄적인 FTA 체결보다는 중동 각국의 경제발전단계에 맞는 다양한 협정, 즉 WTO 가입 촉진, 일반특혜관세(GSP) 증진, 무역 및 투자 기본협정 체결, 양자투자협정 체결(BIT), FTA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임.

## 나. 미·오만 FTA 주요 내용<sup>5)</sup>

■ 제조업 및 농산물 시장 접근

- 발효 즉시 산업 및 소비재는 100% 무관세가 적용되며, 10년내로 잔존하는 모든 관세를 철폐한다는 계획에 합의함.
- 미국의 대오만 수출 농산물 관세품목의 87%는 협정 발효 후 즉시 무관세, 오만의 대미국 수출 농산물 품목의 100%는 협정 발효 후 즉시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10년 내 농산물 관세 철폐 이행에도 합의함.

4) USTR(2005. 3), *2005 Trade Policy Agenda and 2004 Annual Report*.

5) USTR Trade Facts(2005. 9)

- 섬유 및 의류제품의 상호 호혜적 시장접근, 개별 제품별로 동일한 관세 철폐 이행 스케줄 실시, 대부분의 품목에서 즉시 또는 5년내로 관세 철폐, 무관세 시장접근을 위한 원산지 규정에서 방사(yarn)와 직물(fabric)이 미국 또는 오만산을 사용한 섬유 및 의류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삽입함.

#### ■ 서비스부문 및 기타

- 오만은 서비스 쉰 부문에 걸쳐 실질적인 시장 접근을 허용하였고, 주요 서비스개방부문은 시청각부문, 택배서비스, 통신,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유통서비스, 보건의료, 광업, 건설, 건축, 엔지니어링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미국의 은행, 보험, 증권 등 관련 금융서비스업계의 자회사, 지사, 합작회사 설립 등이 자유롭게 되었고, 오만 투자자와 같이 내국민대우를 부여받게 되었음.
- 그밖에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정부조달 지원 권리 획득, 환경보호를 위한 조항, 국제노동기구의 선언을 반영한 노동자의 권리조항, 부패 방지, 투명한 분쟁해결패널 절차 등을 명시한 포괄적인 FTA가 체결되었음.

### 3. 미·태국 FTA 협상 분석

#### 가. 미·태국 FTA 협상 추진배경

- 양국의 FTA 협상 추진배경은 미국의 대ASEAN<sup>6)</sup> 무역전략인 “ASEAN 이니셔티브사업( Enterprise for ASEAN Initiative: EAI)” 으로부터 시작됨.

##### ○ ASEAN 이니셔티브 사업<sup>7)</sup>(EAI) 개요

- 부시 대통령이 2002년 10월 발표한 이 사업은 ASEAN 국가들과 지역 또는 쌍무적인 무역 및 투자관계 활성화를 통해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6) ASEAN 국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총 10개 국가. ASEAN은 미국의 여섯 번째 무역상대국이고, 2003년 무역액은 127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ASEAN 지역의 인구는 약 5억 명에 달함.

7) USTR(2002), *Enterprise for ASEAN Initiative*.

및 외교안보적 이익을 달성할 목적으로 부시 대통령에 의해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 미·태국 경제관계

- 2004년 미국의 대태국 무역적자는 112억 달러이고, 이는 2003년의 93억 달러보다 19억 달러가 증가하였고, 2004년 미국의 대태국 수출(재화 기준)은 64억 달러로 전년대비 9.0% 증가하였음.

**표 2. 양국의 수출입 및 미국의 대태국 무역수지**

(단위: 백만 달러)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미국의 대태국 수출	5,995	4,859	5,843	6,363
미국의 대태국 수입	14,729	14,799	15,181	17,577.1
미국의 대태국 무역수지	-8,733	-9,940	-9,339	-11,214

자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2005)

- 2004년 태국은 무역수지 기준 미국의 14대 교역대상국이고, 수출로는 미국의 23대 대상국, 수입으로는 미국의 16대 교역대상국임.<sup>8)</sup>
- 2004년 미국의 대태국 누적 FDI는 약 77.5억 달러이며, 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고, 제조업은 기계류 및 운송장비, 서비스업은 도소매부문이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농업부문은 거의 전무한<sup>9)</sup> 수준임.

**표 3. 미국의 대태국 직접투자액 및 총 FDI 추이(누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연 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대태국 투자액	5,824	6,176	7,774	7,098	7,747
미국의 FDI 총액	1,316,247	1,460,352	1,616,543	1,791,981	2,063,998
태국 비중(%)	0.44	0.42	0.48	0.40	0.38

자료: BEA(2005), *Direct Investment Position*.

8) 한국은 2004년 기준 무역수지로는 미국의 8대 교역대상국, 수출 및 수입은 7대 교역대상국으로 태국에 비해 미국과의 경제관계가 훨씬 큰 규모임. BEA(2005. 10),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

9) WTO Trade Policy Review: Thailand, pp. 11~12.

## 나. 미·태국 FTA 추진 목적

### ■ 미국의 대태국 FTA 추진 목적

#### ○ 경제적 목적

- 태국과의 FTA는<sup>10)</sup> (i) 미국의 농산물, IT산업분야, 통신, 금융서비스, 음향 및 시청각, 자동차, 의료기기 등의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고, (ii) 미국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고, (iii) ASEAN 지역에서 양자간 자유무역의 네트워크 구성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며, 다자적 측면에서 WTO/DDA 협상에 있어 태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 비경제적 목적

- 쌍무적으로는 주요 군사동맹국(key military ally) 관계 강화,<sup>11)</sup> 외교적으로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주요국인 태국과의 FTA를 통해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외교안보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동남아시아 진출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중요한 측면이 있음.

### ■ 태국의 대미국 FTA 추진 목적

#### ○ 경제적 목적

- 미국과의 FTA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해 세계 최대 내수시장인 미국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와 경쟁력을 증가시켜 태국의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 또한 미국과의 FTA를 통해 투자증가<sup>12)</sup>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여타 국가에 비해 선점할 목적임.
- 태국은 저임금 수출체제로부터 서비스경제 지향, 하이테크산업 육성, 기술개발 촉진 및 노무 관리기술 향상을 추구하고 있고, 미국과의 FTA는 태국경제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음.

10) CRS(2004. 4), US-Thailand Free Trade Agreement Negotiations.

11) 특히 대테러 전쟁에서 태국의 협조 강화 목적을 포함함.

12) 대태국 FDI 규모(flow 기준)는 2003년 누적 31억 달러 2004년 37억 달러에 달하고, 일본, 미국 순으로 대태국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의 대태국 수입액 비중은 1999년 1.43%에서 2004년 1.15%로 감소하고 있어 이를 만회하기 위한 전략으로 미·태국 FTA를 태국이 적극 추진함.

**표 4. 2004년 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

(단위: 백만 달러)

	수출액	수입액	총교역액	무역수지	국별 교역비중(%)
일본	13,498.3	22,293.5	35,791.9	-8,795.2	19
NAFTA 국가	17,031.1	7,864.6	24,895.8	9,166.5	13
캐나다	1,060.8	498.0	1,558.8	562.8	1
멕시코	462.0	160.3	622.3	301.7	0
미국	15,508.4	7,206.3	22,714.7	8,302.0	12
EU 25개국	14,398.3	9,376.7	23,775.0	5,021.6	12
ASEAN	21,240.9	15,823.9	37,064.8	5,417.0	19
중국	7,115.0	8,144.3	15,259.3	-1,029.3	8
한국	1,859.0	3,575.9	5,435.0	-1,716.9	3
총교역액	96,530.3	94,261.6	190,791.9	2,268.7	100

자료: Bank of Thailand(2005. 9)

**표 5. 미국의 대태국 및 기타국 수입액 추이**

(단위: 십억 달러)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미국의 대태국 수입액	15.2	17.4	14.7	14.8	15.2	17.6
태국 비중(%)	1.43	1.38	1.25	1.23	1.16	1.15
미국의 대멕시코 수입액	111.1	137.5	131.4	134.7	138.1	155.8
멕시코 비중(%)	10.48	10.92	11.14	11.21	10.58	10.22
미국의 대중국 수입액	87.8	107.6	102.3	125.2	152.4	196.7
중국비중(%)	8.29	8.55	8.67	10.41	11.67	12.89
미국의 대한국 수입액	32.5	41.7	36.5	36.9	38.3	47.8
한국 비중(%)	3.06	3.32	3.09	3.07	2.94	3.13
미국의 총수입액	1059.6	1258.2	1180.2	1202.4	1305.3	1525.5

자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2005)

○ 비경제적 목적

- 태국은 동남아시아 FTA 허브국가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미국과의 FTA는 미국과의 경제 및 외교, 군사 동맹관계를 강화시켜 동남아시아에서 태국이 주도적으로 경제 개방 및 개혁을 추진하는 선도국가 달성에 유리하고, 외교강국 달성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판단함.<sup>13)</sup>

## 다. 양국간 주요 협상이슈

### ■ 미·태국 FTA의 특징

- 미국과 태국의 FTA는 미국이 여타 국가와 맺은 FTA와 비교할 때 가장 포괄적인 FTA<sup>14)</sup> 체결이 예상되고, 현재 상품 및 서비스무역, 농업, 투자,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세관절차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여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 ■ 재화 및 서비스 시장 접근

#### ○ 상품시장 접근

- 비농업수입품에 대한 태국의 13%에 달하는 평균관세<sup>15)</sup> 제거가 상품무역에서 가장 큰 이슈이고, 태국의 수입허가제, 불투명한 관세 행정절차, 물품세 등이 그밖의 주요 이슈임.
- 미국의 태국산 비농산물 수출품에 대한 평균 관세<sup>16)</sup>는 2~3%에 불과하나, 태국산 경트럭, 설탕 등의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해 FTA 협상에서 이슈<sup>17)</sup>가 되고 있음.

#### ○ 서비스시장 접근

- 미국정부는 태국에 미·싱가포르 FTA와 마찬가지로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을 채택하여 몇 개의 예외를<sup>18)</sup> 제외하고 전면적인 시장 접근을 촉구하고 있음.
- 태국은 서비스분야의 낮은 경쟁력을 이유로 전면적인 시장접근 허용에 부정적임. 태국은 통신서비스 개방에 부정적이며, 은행서비스분야의 대미 경쟁이 곤란하고, 1997년 통화위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일정 부분 시장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sup>19)</sup>을 펴고 있음.

13) *Ibid*, p. 2.

14) Ambassador Nitya Pibulsonggram, the chief negotiator for the US–Thai FTA, 2005. 5. 25.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2005. 3), "Report to the Congress on the Extension of Trade Promotion Authority."

15) WTO(2004), *Trade Policy Review – Thailand*, p. 73.

16) CRS(2005. 3), *Trade Negotiations During the 109th Congress*.

17) Inside U.S. Trade(2004. 6), "Talks on U.S.–Thai FTA to Kick Off in Hawaii; USTR Sees Drawn-Out Process."

18) 정부 자격증, 정부 허가가 필요한 서비스부문(변호사, 회계사),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공공 병원, 국영기업(공사), 에너지와 같은 국가정책서비스부문이 미·싱가포르 FTA에서 시장 접근 예외로 인정됨.



### ■ 농업이슈

- 양국 모두 농산물 수출이 중요하나 미국 농산물시장에 대한 태국 농산물(설탕, 쌀 등) 진출이 협상의 주요 이슈이고, 미국 전체 농산물 수출에서 대태국 비중은 16번째에 불과하나, 미국 전체 농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대태국 비중은 네 번째<sup>20)</sup>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02년 기준으로 양국간 농산물 교역은 총 12억 달러에 달하고, 미국이 3억 7,700만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태국의 대미국 주요 농산물 수출품은 해산물, 냉동새우, 고무, 쌀, 타피오카, 설탕, 과일 및 야채이고, 미국의 대태국 주요 수출품은 유지종자(oil seeds), 면화, 씨리얼, 대두유 등임.

### ■ 태국의 관세 및 비관세 농산물시장 제도

- 태국은 소비자가 바로 소비할 수 있는 쇠고기, 신선한 과일 및 야채에 30~50%의 관세<sup>21)</sup>를 부과하고, 추가로 물품세, 부과금, 인허가비용, 상표 표시, 인증 기준 등의 수입허가비용을 추가 부과하는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태국 농업시장의 보호를 위해 유지하고 있어 협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

### ■ 지식재산권 보호

- 태국은 2005년 미국 USTR이 정한 '감시대상국가(Watch List)'<sup>22)</sup>에 있으며, 미국정부와 업계는 DVD/CD 해적 복제 및 복제품 수출의 지속적 증가 및 태국의 광디스크 복제에 대한 관련 법규 미비를 우려하고 있음.
- 미국은 의약품 데이터 보호를 위한 관련 시행령 미비, 의약 특허 승인 지연, 의약 관련 당국간 공조 부족, 위조 의약품의 제조, 포장 및 판매 증가 등을 우려하며 태국 당국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고, 양국 FTA 협상에서 미국의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한 태국의 조치가 FTA 성공의 주요한 열쇠<sup>23)</sup>임을 강조함.

19) Ambassador Nitya Pibulsonggram, the chief negotiator for the US-Thai FTA(2005. 5. 25)

20) Thailan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2003. 12), "Impact of Thailand-U.S. Free Trade Agreement."

21) USTR(2005), *2005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p. 604.

22) 한국은 2004년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에서 2005년 감시대상국으로 한 단계 낮춰졌음.

23)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2005. 10)

- 태국은 지식재산권 강화가 미국만의 이익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는 주장을 펴면서, 미국의 대태국 기술이전, 미국의 직접투자 증가 등 태국경제에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가져오도록 호혜적인(mutually beneficial) 방향으로 지식재산권 강화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요구에 대응<sup>24)</sup>하고 있음.

#### ■ 환경 및 노동

- 태국정부는 노동 및 환경을 FTA 협정과 연계하는 것은 개도국 수출품 가격상승 및 이로 인한 가격경쟁력 하락을 유발하여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면서, 태국이 맺은 기존의 FTA에는 노동 또는 환경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음.

#### ○ 9월 미·태국 5차 협상의 주요 진전

- USTR은 이번 5차 협상에서 서비스 교역을 포함해, 외국인투자 관련 조항 및 금융서비스분야에 대한 “중요한 진전(significant progress)”과 “구체적인 진전(concrete progress)”이 있었음을 시사하였음.

#### 글상자 1. 중요 진전(significant progress)

5차 협상의 중요 진전(significant progress)은 태국이 미국의 주장을 수용해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 개방 및 지식재산권 보호조항(IPR protection)을 FTA 조항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하였고, 그동안 태국이 적극 반대해왔던 환경이슈(environmental issues)가 FTA 조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 11월 미·태국 6차 회담 현안 이슈<sup>25)</sup>

- 5차 회담 때 서비스와 금융서비스장을 독립적으로 FTA 조항에 포함하는 것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여전히 금융서비스부문에 있어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approach)’를 고집하고 있고, 태국의 서비스산업 피해 발생시 ‘서비스 세이프가드(services safeguards)’를

24) 태국은 미국 제약업체가 개발한 신약 특허권을 강화할 경우 태국 의약품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고, 식물품종에 대한 특허권 보호문제도 품종 다양성 보존, 식량안보이슈 등과 연결시켜 대응하고 있음 (The Chief Negotiator for the Thailand-US FTA, 2005. 5).

25) *Inside the U.S. Trade*(2005. 10. 14)

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펴고 있음.

- 재화시장 접근에 관한 협상, 특히 태국산 경트럭에 대한 미국측의 관세부과 이슈 및 2006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7차 협상을 12월로 앞당겨 진행시켜, FTA 체결을 가능한 신속히 진행하는 이슈 등임.

#### 4. 결론 및 시사점

- 미국은 2005년 7월 중미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하였고, 10월 오만과의 FTA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태국과는 5차 협상을 9월 말 완료하고 11월 6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어 2006년 초반까지 태국과의 FTA 체결을 가능한 완료한다는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주요 이슈에도 불구하고 미·태국 양국 모두 FTA 타결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음.
- 미·오만 FTA는 부시 대통령의 중동자유무역지대(MEFTA) 추진이라는 큰 틀 안에서 7개월 만에 신속하게 체결되었고, 미·태국 FTA 협상에 대해 10월 4일 양국 정부는 5차 협상에 중요 진전이 있었음을 밝히고 더욱 적극적으로 11월 6차 협상에 임할 것을 밝힘과 동시에 성공적인 FTA 추진을 위해 양국 정상의 적극적인 성명과 지지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음.
- 미국은 태국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태국 FTA 조항에 금융서비스 개방, 지식재산권 보호조항, 환경관련 조항 이슈를 포함하려는 노력을 경주해 왔고, 미·태국 5차 FTA 협상 때 이를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1월 예정된 6차 회담에는 태국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어, 양국간 협상 이슈 및 결과에 대한 연구를 우리의 대미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이 현재 FTA를 발효시킨 국가와의 교역이 총교역의 1/3를 넘고 있으며,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를 포함하는 경우 그 비중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우루과이, 이집트, 뉴질랜드,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대만 등이 미국과의 FTA 체결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 국가들까지 포함하는 경우 미국의 총교역에서 FTA를 발효시킨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이를 것으로 보임.
- 미국이 2002년부터 적극적으로 FTA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02년 8월 6일 의회에서 통과된 「2002년 무역법」에 따라 무역증진권한(TPA)<sup>26)</sup>이 미국 대통령에게 주어졌기 때문임.

- TPA는 2007년 6월 말로 권한이 종료가 되며,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감안할 때 미국과 FTA 체결을 원하는 국가들은 TPA 효력이 만료되기 전에 FTA 체결을 완료해야 한다는 물리적인 제약이 존재함.
- 전 세계적으로 2006년은 미국이 주도하는 가장 활발한 FTA 협상의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2007년 중반 미국의 무역진흥권한 시한 만료로 인해, 미국과 FTA 체결을 원하는 국가들은 늦어도 2006년 전반기에는 협상을 개시<sup>27)</sup>해야 하는 타이트한 일정이 예상되고 있어 우리도 이를 고려한 적극적인 대미 FTA 전략이 필요함.
- 한국과 미국이 FTA를 체결하는 경우 무역수지규모, 수출 및 수입규모, 투자규모,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외교안보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태국 FTA보다 경제 및 정치외교적 파급효과가 큰 FTA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경제 및 법률제도, 경제적 이익, 외교안보적 이익, 역사적 상황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한·미 FTA 추진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26) TPA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대외무역협상의 전권을 일정한 조건하에 위임하고, 의회는 대통령이 체결한 무역협정을 수정 없이 승인 또는 부결 여부만 결정하는 내용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음.

27) USTR 대표는 10월 7일 새로운 국가와의 FTA 협상 개시는 FTA 체결이 주어진 시간내에 완료될 수 있는가를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밝힘(*Inside U.S. Trade*, 2005. 10. 7).